

북한 이탈 주민 어머니들의 교육 욕구 분석

지상선
(성균관대 아동·청소년학 박사수료)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계사의 흐름에 있어서 커다란 특징 중 하나는 이동성이다. 이러한 최근의 흐름은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넘어 경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구조적 변화들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설명 할 수 있는 현상 중 '이주'를 들 수 있다. 전 세계의 이슈이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2016년과 2018년 사이에 예멘 출신 난민들이 제주도에 대거 입국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에 난민 지위 인정을 요청한 사건을 보더라도 국제적으로 세계화의 흐름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법무부 2017년 7월 기준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내 체류외국인은 약 2,280,498명으로 2016년 2,049,441명 대비 6.4% 증가, 최근 5년간 연평균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전체 국민 인구 대비 체류외국인 비율은 2013년 3.08%에서 2017년 4.21%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018,074명(46.7%)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169,738명(7.8%), 태국 153,259명(7.0%), 미국 143,568명(6.6%), 우즈베키스탄 62,870명(2.9%), 필리핀 58,480명(2.7%)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냈으며 인종이나 민족 등의 차이는 다문화 사회에서 새로운 소외계층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결혼 이주 여성 문제의 이슈는 소수집단에 대한 포괄적인 이론과 정책, 외국인 노동자와 국제결혼 가족의 자녀양육 문제, 다민족·다문화 사회에 대응하는 정책의 필요성 등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김세훈, 2006; 부티짱, 2017, 김이선 외 2006, 박진수, 2017). Will Kimiicka and Keith Banting(2006)은 소수 구성원들의 문화적 권리와 보호를 위해 다각적 정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회 개선책으로 소수문화 집단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사회적 차별에 대한 적극적 보상을 포함하였다. 이는 이주 집단의 소수자 지원책과 다문화 관점에서 인식의 전환 제도와 정책의 확장이 필요함을 제시하였으며 소수자 그룹의 인권신장과 권익보호 정책 개발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 그러나 다문화 수용적 관점에서 우리사회의 또 다른 소수 그룹인 북한이탈주민 문제를 바라보고자 하는 노력은 미진하였다.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우리와 다른 문화로 인식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강동완(2008)의 연구에서 나타났다. 통일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들의 수는 1998년 947명을 시작으로 해마다 천명 이상 꾸준히 증가해 2015년도 1,275명, 2016년도 1,418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토대로 현재 남한에 거주하는 총 북한이탈주민들의 수를 파악해보면 2018년 3월 기준 약 31,530명 정도로 조사되었다(통일부, 2018). 국내 체류외국인들에 비해 결코 작은 수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김영하(2010)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적응에 대한 정책은 북한이탈주민 위주의 일반적 동화정책을 펴왔으며 적극적 대처의 미흡과 남한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한 교육은 중요한 자원이 될 수밖에 없고 교육 욕구의 다문화 사회교육에 대한 논의와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북한이탈주민 관련 연구는 주로 성인 집단으로 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수가 증가함에 따라 만한 사회 적응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적응에 따른 연구와 학교 적응, 정체성 및 개인적 사회적 구조적 현황에 따른 정책 지원 등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지금까지 탈북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탈북청소년의 특성이나 능력 등을 고려하기보다 하루 빨리 남한의 사회문화에 적응한다는 동화 주의적 관점에 기초하고 있었다(김선화, 2009: p.52, 좌동훈 외, 2016). 또한 민간 그리고 정부 그리고 학회의 연구단체에서도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위한 남한 정착 프로그램을 위한 개발과 적응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김영하, 2010). 북한이탈주민 유아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박모란, 2002; 김진섭, 2004; 유가호 외, 2004; 김보영, 2009; 박병규, 2009; 고은희, 2009; 심옥력, 2012; 배재훈, 2012; 진나영, 2016)는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대상 연구보다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들의 연구는 최근까지 살펴보면 적응과 부적응, 사회·문화 적응, 심리 정서 적응, 학습 적응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현황 및 정책 대안 모색(이영아, 2017)을 통한 양적 연구가 대부분이다.

지다슬(2015)의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는 한국 사회의 정착을 가장 큰 과제로 삼고 현재 상황과 문제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의 과거의 경험과 그들이 가진 문화적 배경에 따른 다문화교육의 관점에서의 학문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하였고 지원과 적절한 교육지원을 통한 민주사회와 세계 공동체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민경·김경근 (2010) 논문에서 이주가정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교육의 욕구와 자녀교육의 지원 양상 그리고 사회문화적 스펙트럼을 탐구하였다, 이들의 자녀교육의 욕구와 지원은 한국사회 적응과 정착에 매우 핵심적인 의미를 지니고 극복기제로서 작동함을 보여주었다.

지금까지 각 소수자 집단들을 심층적 접근 방식의 연구는 적었으며, 또한 그들의 교육 욕구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소수자 집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는 다문화 이주 시각의 차이점을 심층적으로 바라보는 연구도 드물다. 한국 사회의 다문화의 한 축으로써 자리 잡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 이탈 주민 어머니들의 교육 욕구 분석을 통해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와 자녀교육의 욕구 표출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현재 상황과 당면 문제들에 따른 의미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탐구를 통해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이 지닌 자녀교육에 대한 태도와 욕구 양상이 이주한 삶에서 갖는 의미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그들의 자녀들이 남한 사회에서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탐색하기 위한 예비적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추후에 이 연구를 바탕으로 실제적인 교육 콘텐츠 개발을 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와 의미는 무엇인가?
- 2)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자녀교육에 대한 욕구 표출 양상과 의미는 무엇인가?

2. 용어의 정의

1)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 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북한이탈주민은 냉전 초에는 귀순 용사 또는 귀순자, 90년대 이후부터는 탈북민, 탈북자, 북한 이주민, 새터민, 탈북동포, 자유 동포 등의 다양하게 불렸다(김영하, 2010). 현재 법률상 공식적 용어가 ‘북한이탈주민’인 점을 고려해, 본 연구에서는 북한을 탈출한 후 직접 또는 제3국을 경유하여 남한에 입국·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북한이탈주민’으로 정의한다.

2) 포커스 그룹 인터뷰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치밀하게 계획된 일련의 토의인데, 어떠한 강요도 없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특정 관심 분야에 대한 참여자들의 인식을 알아낼 수 있도록 설계된다(Krueger & Casey, 2014). 또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핵심적인 특성은 그룹 내의 상호작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다른 방법으로 도출하기 어려운 질적 자료와 이에 대한 통찰을 얻는데 있다(Morgan, 2007). 따라서 이 연구 방법은 그룹 인터뷰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과 생각을 깊이 있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아동, 청소년 자녀를 둔 탈북이탈주민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와 의미와 자녀교육에 대한 욕구 표출 양상과 의미는 무엇인지 보다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포커스 인터뷰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아동 청소년을 자녀 둔 경기도에 거주하는 탈북이탈주민 어머니를 대상으로 북한에 거주한 기간이 20년이 넘은 표적대상자를 추천 받았다.

〈표-1〉 포커스 그룹 연구 참여자의 기초 정보

연구 참여자	A	B	C	D
연령	37세	46세	43세	42세
남한 거주기간	7년	10년	2년	2년

북한 거주기간	24 년	26 년	40 년	21 년
최종학력	고	전문대 3년	고	고등학교
자녀 수	2명	3 명	1 명	1 명
자녀의 학년	초5, 초1	중3, 중2, 7세	고1	초 5
취업 유무	전일제 근무	전일제 근무	전업주부	전일제 근무
배우자	한 부모	조선족	알 수 없음	한 부모

2.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은 2017년 10월부터 11월15일까지이며 본 연구자가 방문하여 연구취지를 설명하고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수집 자료는 포커스인터뷰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화 녹음을 기록한 전사본과 인터뷰 진행 중에 작성한 현장노트이다.

인터뷰의 목적, 진행과정, 주요 질문 그리고 소요 시간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인터뷰 시작을 참여자들에게 알리고 녹음을 시작하였으며 동시에 인터뷰 내용을 기록하였다. 인터뷰 소요 시간은 1차 평균 50분, 2차 평균 60분이며 수집된 자료는 A4 용지 기준으로 1차 27장, 2차 30으로 총 57장의 분량이었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자녀교육 욕구를 심층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연구 방법으로 선택하였으며, 개방형 질문을 통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의견의 일치가 아닌 자녀교육에 대한 어머니들의 경험과 생각, 그리고 욕구를 구체적으로 듣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위한 사전 연구, 그룹 인터뷰, 분석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은 <그림-2>와 같다.



<그림-1> 포커스 그룹 인터뷰 연구 절차

1) 사전 연구

(1) 질문지 개발

효과적 질문지 개발을 위하여 탐색을 목적으로 한 연구로써 1차 예비 인터뷰는 낮은 구조화에 따른 질문 방법으로 반구조화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후 2차 인터뷰는 1차 예비

인터뷰 분석을 통해 구조화가 비교적 높은 질문을 통해 인터뷰하였다 예비 연구를 통해 그룹의 형태를 확정하고 질문의 적절성 및 효과성, 그리고 진행의 미숙함 부분을 직시하고 수정 보완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질문 목록은 <표-2> 와 같다. 본 연구는 김현아(2012), 박혜원(2006), 조해연(2007), 차미연(2016) 연구 설문지를 참고하여 5개 유형의 시작, 도입, 전환, 핵심, 마무리 질문으로 작성하였으며 1차 예비 연구에서 전문가 교수와 협의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표-2>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질문 목록

시기	구분	질문 목록	비고
1차 활용 & 인식	시작	인구학적 정보 응답지에 기재 - 자녀의 나이와 수는 어떻게 되나요? - 어머니의 학교는 어디까지 하셨나요? - 어머니는 직업을 가지고 있나요? - 지금 현 거주지는 어디인가요?	10
	도입	- 아이들을 교육하고 키우시라 고생이 많으셨죠? - 자녀를 북한에서 어떻게 교육하고 키우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남한에서는 어떻게 교육하고 키우셨나요? - 어머니로써 자식을 교육하는데 남한의 어머니 보다 어떤 부분이 힘들셨나요? - 좀 더 이야기 해 주시겠어요?	10
	전환	- 자녀가 엄마의 마음처럼 교육을 잘 따라 가지 못하면 엄마의 마음이 어떠한가요? - 자녀와 부딪히는 갈등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 남한 사회에서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지역사회나 국가의 실천방안에는 어떤 자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10
	핵심	- 아이들을 교육 할 때 남한의 교육과 북한의 교육 차이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 그 어려움에 대해 어떻게 해결 하셨나요?	10
	마무리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10
2차 인식 & 요구	시작	- 인구학적인 정보에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위의 정보를 바탕으로 각자 자기소개를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15
	도입	- 아이들을 교육하고 키우시라 고생이 많으셨죠? 남한에서 자녀를 교육할 때와 어머니가 북한에서 교육 받을 때 어떤 한 점이 다른지 말씀 해 주시겠어요? - 남한의 어머니로 살아가는데 자식 교육에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은 일화에 대해 이야기 해 주시겠어요? 어떠한 경험이 있었나요?	10

		- 남한에서 자식을 교육할 때,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전환		- 아이들을 교육 할 때 남한 교육의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 북한의 교육의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 자녀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 하셨나요? - 자녀를 교육하면서 자녀가 성적을 잘 따라 가지 못하면 엄마의 마음이 어떠한가요? - 남한의 학교 적응에 있어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로써 힘들었던 점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 라고 말씀 하셨는데 어떻게 적응하셨나요? - 자녀의 교육과 관련해서 부딪히는 갈등이 있었다면 어떤 점이 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어머니와 자녀가 갈등을 어떻게 대처 했나요?	30
핵심		- 어머니는 남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자녀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남한 사회에서 자녀를 교육할 때 지역사회나 국가의 지원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나요?	10
마무리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10

(2) 포커스 그룹 대상자 선정

성공적인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위해서는 적당한 수와 적합한 사람들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Krueger & Casey, 2014). 3~5명의 참여자로 이루어진 미니 포커스 그룹(mini-focus group) 인터뷰 방법을 선정하였다.

(2) 본 연구

본 연구는 2017년 10월부터 11월 15일까지 섭외 기간이 소요되었고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 선정 후 연구 참여자의 가능한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정하였다. 그룹별 일정표는 <표-3> 다음과 같다.

<표-3> 그룹 별 일정표

	모임 날짜	모임 시간	소요 시간	모임 장소	참여 인원
1차 그룹	2017.11.18	1시간	50	센터	4명
2차 그룹	2017.11.25	1시간 30분	70	센터	4명

4. 자료 분석 과정

자료 분석 과정은 질적 자료를 근거 이론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고전적 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질적 연구의 분석 원칙을 따르되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주의해야 할 분석 요소를 고려했다. 인터뷰 분석에서 사용한 방법은 Krueger가 제안한 근거 이론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분석 방법을 근간으로 한다. 이 분석 방법은 분석 내용을 쉽게 다룰 수 있는 적절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로 나누어 구체적인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그리고 고전적 분석방법은 오려내기, 정렬하기, 비교와 대조를 통한 재정렬 등의 과정을 거친다. Krueger & Casey (2014)는 분석자로 하여금 주제를 파악하고 결과들을 범주에 따라 분류할 수 있게 해주는 효과적인 분석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 과정은 <그림-3>과 같다. 본 연구는 분석된 자료의 윤리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림-2> 포커스 그룹 인터뷰 자료 분석 과정

1차 예비 포커스 집단에서는 개방코딩, 축코딩을 통해서 하부 범주와 범주, 주제, 영역을 통해 2차 포커스 집단 인터뷰에 사용될 질문지를 수정 보완 하였고 1차 동일한 코딩을 통해 2차 인터뷰 분석 결과 도출된 하부 범주와 범주가 좀 더 구체화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2차 포커스 집단 인터뷰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는 2개의 주제, 5개의 범주, 16개의 하위범주로 분류되어 정의되었고, 각 영역별 주요 분석 결과는 <표 4>과 같다.

<표-4> 포커스 그룹 인터뷰 주요 분석 결과

주제	하위범주	범주
자녀교육 기대	현실 적응을 위한 가면	교육관
	교사 권위에 따른 교육 기대	
	평등 소망	
	주체적인 성장과 자립	
	자식 간의 성공 연대	교육 경험
	교육의 이질감	
	현실 적응을 위한 지지	
	기대와 다른 장벽	
자녀 교육 욕구 표출	자녀들에게 배우는 교육	교육 갈등
	북한 교육으로의 회기 욕구	
	타고난 금수저, 은수저	교육 시스템 및 대처
	정체성에 대한 불편한 진실	
	익숙지 않은 교육시스템	
자기 개방의 필연성		

	정부 지원의 불신	지원
	조력자의 필요성	

2) 연구의 윤리성 및 타당성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절차를 알리고 연구 참여자의 정보와 인터뷰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안내하였다. 사전 동의하에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본명을 알파벳으로 대체하였으며 연구 내용을 전사하는 과정에서도 인명은 기호로 구분하여 익명성이 보장된 자료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신원을 알 수 있는 자료와 음성 파일은 연구자가 보관하다가 분석을 종료함과 동시에 폐기하였다.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준비 단계에서 질문 개발 후 1차 포커스인터뷰 예비 조사를 통해 불확실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 확인법(member check)을 사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북한 이탈 주민 어머니들의 교육 욕구 분석에 대해 도출한 주제별 범주화에 따른 범주별 기술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와 의미

1) 자녀 교육관

(1) 현실 적응을 위한 가면

인터뷰 중 세 차례 이상 언급한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자녀 교육관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 그들의 정체성을 숨기며 오직 자식만을 위해 현실을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 자식을 위해서는 자기 개방의 어려움 또한 크다고 하였다.

“말투 때문에 소외받은 적이 있어요 학부모 모임 나가니까 이미 엄마들끼리 수군수군 했어요 임대 아파트에서 사니까 목소리만 들어도 툰 자체가 들어도 아무리 억양을 이뤘네요 해도 목소리 툰만 들어도 아 저 사람은 북한에서 왔다는 생각보다는 요즘 다문화 가정이 많으니까 중국에서 왔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저는 부산에서 살다 왔으니까 옛날에 부산에서 살았을 때는 강원도에서 왔다고 했는데, 좋은 게 부산의 억양 툰이 세니까 서울에 오니까 부산에서 살다가 중국 10년 유학 갔다가 살아 신랑 만나 남편 결혼해서 말이 짬뽕이다 근데 엄마들이 수군수군해서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거의 알고 있는 엄마들이 거의 돼요.” (어머니 B)

(2) 교사 권의에 따른 교육 기대

인터뷰 중 세 차례 이상 언급한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자녀교육관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 인권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언급하였다. 따라서 교사의 권위가 없어서 아이들의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북한에서는 선생님들이 정말 아이를 내 아이처럼 돌봐주니까 선생님이라 하면 엄마들이 껌벅 절을 해요 앉아서도 절할 듯이 선생님이라 하면 깎듯이 모시는데 학급의 발전을 위해 상의하는 자리인지 선생님을 욕하는 자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 A)

(3) 평등 소망

인터뷰 중 세 차례 이상 언급한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자녀 교육관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 자유보다 평등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것은 남한 교육의 불만 표출로 힘을 주며 표현하였다.

“엄마들이 애들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하고 학원 많이 다니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애들이 평등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더라. 지금은 좋은 대학도 있고, 어떤 대학도 있고. 그런 거 없이 평등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애도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는 말을 해요.” (어머니 D)

(4) 주체적인 성장과 자립

인터뷰 중 세 차례 이상 언급한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자녀 교육관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 자녀들이 학교에서 주체적인 선택을 하고 스스로 자립하기 원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다툼이나 몸의 상처에 대하여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 이유는 북한 아이들 남한아이들 보다 정신력이 강하다고 하였다.

“애들 정신 상태가 한국 애들하고 완전히 달라. 하늘과 땅 차이야. 북한 애들은 전쟁 일어나면 내 한 몸으로 막는다! 이런 정신이 있단 말이지. 근데 여기 애들은 특이하게도 안 그래. 여긴 자기밖에 모르는데.” (어머니 B)

“여기 부모들이 애에 대한 집착이 심하잖아요. 어린이집에서도 조금 굶혀와도 난리 치는데 저는 절대 그런 경우가 없음 애들은 넘어질 수도 있고 누구 말마따나 장애 가질 정도 아니고 친구하고 다툼하고 굶혀올 수도 있고 혼자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는데 담임선생님 한 분이 다 볼 수 없음 저는 아이의 일에 크게 신경을 안 썼어요.” (어머니 A)

“아들이 다 커서 학교도 오지 말래 친구들 집에 데려와서 놀고 주말엔 알바해서 지절로 돈 벌어서 먹고 쓰고.” (어머니 C)

(5) 자식 간의 성공 연대

인터뷰 중 세 차례 이상 언급한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자녀 교육관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 자식에 대한 기대는 어머니 자신의 성공이고 곧 자녀의 성공으로 여긴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녀들에게 부모의 올바른 교육관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엄마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뭐라도 했을 텐데 한국에 이만큼 정착했으면 성공한 거다. 눈물 나는 거야. 엄마 성공은 이제부터야 엄마는 살아왔지만 엄마 성공은 너네한테 달렸다고 했죠. 우리 막내는 아직 모르죠 그건 말해도 모르죠...” (어머니 B)

6) 교육의 이질감

인터뷰 중 세 차례 이상 언급한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자녀 교육관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 북한과 남한의 교사의 차이에 따른 교육의 이질감을 언급하면서 북한 교사의 장점과 남한의 교사 단점을 언급하였다.

“나는 막말로 요새는 아동 학대라는 말은 나오지만 나는 때려도 괜찮아요. 선생님이라고 하면 말을 잘 들어요 애들은 선생님이라 하면 말을 잘 듣음 어린이집에 보내도 내 자식 같은 마음으로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애 말 안 듣는데 내버려 두죠 뭐 하면서 시간만 넘여가기 식으로 모르고 넘어가는 식으로 가는 게 좋지 않으면 이렇게 해도 되나 싶다.” (어머니 B)

2) 교육 경험

(1) 현실 적응을 위한지

인터뷰 중 세 차례 이상 언급한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자녀교육 경험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 남한에서 생활하는데 있어서 현실 적응을 잘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였다. 되도록 긍정적 지지와 격려를 하고 남한의 교육 현실에 맞춘다고 언급하였다.

“학원에 못 보내요. 보낼 처지가 안 되니까. 학원에 못 보내고 학교에서 선생님 설명하는 거 좀 잘 듣고 숙제하는 것만 잘해라. 딱 건 강요 안 한다. 운동 좀 시키는 거 위주하고 선생님 설명 귀담아듣고 숙제만 잘해라.” (어머니 A)

“우리 애가 한국 온 지 1년 반 됐어요 작년엔 데리고 왔는데 애한테 스트레스 많이 안 주려고 해요 애들은 또 그럴더라고요 어릴 때는 몰랐는데 이것 좀 보자 맞는지 좀 보자 하면 애들이 싫어하는데 우리 아들 왜 이리 잘하니 잘하니 하면 더 잘하더라고요 애가 어떤 때는 전화 와서 내가 뭐 한다고 하면 나는 우리 아들 왜 이리 잘하니 우리 아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내가 잘하지는 못하는데 잘하려고 엄청 노력한다는 거예요.” (어머니 D)

(2) 기대와 다른 장벽

인터뷰 중 세 차례 이상 언급한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자녀교육 경험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 학교 학부모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처음에는 참석했으나 교육관의 차이로 인해 기대와 다른 소통의 부재를 느꼈다고 언급하였다.

“북한에서는 선생님들이 정말 아이를 내 아이처럼 돌봐주니까 선생님이라 하면 엄마들이 껌벌 절을 해요 앉아서도 절할 듯이 선생님이라 하면 깎듯이 모시는데 학급의 발전을 위해 상의하는 자리인지 선생님을 욕하는 자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어머니 B)

(3) 자녀들에게 배우는 교육

인터뷰 중 세 차례 이상 언급한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자녀교육 경험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남한의 문화를 배우고 익힌다고 언급하였다.

“내가 우리 애를 키우잖아요. 우리 북한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할 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처음으로 애한테서 배운 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것부터 우리가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시작해서 아 애들한테도 배울 건 조금이라도 있구나. 난 그건 느꼈어요.” (어머니 C)

이처럼 인터뷰 내용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자녀 교육관과 교육 경험에 대한 기대를 대하여 살펴보았다.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자녀 교육에 관심과 기대는 많지만 학교 교육의 참여 욕구는 적다.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노출은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Kaufman(2004)이 이주가정 학부모들의 자녀의 학업 성취와 성공은 자신들의 삶에 대한 보상이기도 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자녀를 통해 어머니가 느끼는 감정을 한국 사회의 교육열이 그들을 자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교육관과 북한 교사의 장점을 남한과 비교하며 언급하였다. 어떤 사회 문화적 배경과 세계관을 지녔느냐에 따라 일반 다문화 자녀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즉, 북한의 사회주의 국가관에 따른 민족 정체성이 20년 이상 배어 온 터라 자녀의 교육에 대한 기대와 의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 할 수 있다. 자녀의 교육관에 있어서 겉으로는 지지와 격려를 하고 있으나 내재적으로는 남한 사회의 주류에 편승하고자하는 부모자신의 교육의 욕구를 자식 간의 성공 연대에서 반영하고 있다. 무엇보다 자유와 인권을 찾아서 남한에 왔지만 학교생활 안에서 자녀를 대하는 태도나 교사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현실 적응을 위한 가면, 교육의 이질감, 교사 권위에 따른 교육 기대와 다른 장벽의 하위범주에서 남한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다른 차이를 보였다. 교사의 권위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도덕과 윤리라는 이유를 들어 아이들의 인권보다는 교사의 인권을 더욱 중시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민족적 범주보다 사회 경제적 환경이 중요한 변수란 점을 중시한 이민경, 김경근(2010)의 연구와는 달리 북한이탈주민은 민족적 정체성이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자녀 교육관에 대한 기대와 의미에 중요한 변수일 수 있다는 점이 교육관과 교육 경험에서 나타났다.

또한 남한과 다른 문화로 인식하지 못하는 한계로 인한 교육 수용에 있어서 매우 특수한

현상을 보인다. 개별적 주체로 인식하기보다 전체적 주체로서 교육적 동기가 갖는 태도는 자녀 교육 욕구 방식에 있어서 자유보다는 평등을, 개방 보다는 개혁이란 단어를 더 선호 하였다. 이는 다른 다문화 이주과정과 매우 다른 경향을 띄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자녀교육에 대한 욕구 표출 양상과 의미

1) 교육 갈등

(1) 북한 교육으로의 회기 욕구

인터뷰 중 세 차례 이상 언급한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자녀교육에 대한 욕구 표출 양상에 있어서 남한 교육에 대한 불만을 표출 하였다. 또한 남한 교육의 불만과 이질감, 사교육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특히 여러 차례 교육만큼은 북한이 더 좋다고 힘주어 언급하였다.

“학교 자체가 한국에서 사교육을 얘기하는데 사교육을 해결하려면 학교 개혁부터 해야 한다. 선생님들이 철밥통처럼 월급 받아먹고 밥통이나 얘기하듯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선생님들 개혁부터 해야 한다. 내가 공부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하면 절대 사교육이 안 없어진다. 학교에서부터 애들이 선생님한테 열심히 배우면 학원가라 해도 안 간다. 내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인데 왜 학원을 가야 해라고 하지. 아는 내용인데 굳이 돈 팔며 가야 해! (어머니 B)

“우리 큰 애도 눈치 봐요. 수학 학원가야 하는데 돈 될까.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고등학교 가고 싶은데 엄마가 이쪽 고등학교 가면 돈 동나지 않겠냐고. 자기 희망 꽃피기 전에 꿈꾸기 전에 그런 거부터 생각하는 게 참 마음이 아프게.”(어머니 C)

“학교 가면 선생님 하라는 대로 하면 모든 게 다 만사형통하다. 북한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2) 타고난 금수저 은수저

인터뷰 중 세 차례 이상 언급한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자녀교육에 대한 욕구 표출 양상에 있어서 돈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자유를 찾아 왔지만 힘들게 노동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에 대하여 표현하였다.

“남한은 공부 시키는 것도 돈. 금수저 금수저 태어나고 하잖아요. 애들이 아무리 영리하고 똑똑하고 천재여도 돈이 없어도 못 보내는 것 첫째로 싫었고. 자부담이라서. 북한은 나라에서 애들 키워줘요.” (어머니 D)

(3) 정체성에 대한 불편한 진실

인터뷰 중 세 차례 이상 언급한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자녀교육에 대한 욕구 표출 양상에 있어서 출신에 대한 개방의 어려움을 언급하였다. 그것은 늘 불편하게 다가오는 현실이며 무시를 당한다고 표현하였다.

“우리 말투가 이렇다 보니까 부모 모임에 안 나가요. 애들이 위축될까봐... 우리 선입견 때문에 그런 경험은 없지만 모임에 못나가요. 말투가 이상하면 벌써 많이 물어 보잖아요 그러다 보면 애들까지도 영향을 미칠 까 봐요.” (어머니 C)

“부모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저런 이야기 안 듣고 우리 애가 기죽을까봐. 아들내미가 모임에 못 오게 해요. 17살인데다가 담임선생님 전화 오면 상담 있다고 하면 엄마 가지마. 그냥 무시해 내가 알아서 할 게라고 하죠.” (어머니 A)

2) 교육 시스템 및 대처

(1) 익숙지 않은 교육시스템

인터뷰 중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자녀교육에 대한 욕구 표출 양상에 있어서 남한 교육에 대한 교육 시스템에 대하여 여러 차례 언급하였다. 익숙하지 않은 교육 시스템의 불만과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였다.

“교육과정 이라는게 하늘과 땅 차이. 북한에서는 의무적으로 학원 같은 데를 보내지 않고 자유롭게 애들을 돌볼 수 있잖아요. 한국은 애들도 피곤하고 부모도 피곤한 거 같아요.” (A 어머니)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학원부터 없앤다고. 부모들이 스트레스 안 받고 애들도 스트레스 안 받고 애들이 진짜 스트레스 안 받고 공부할 수 있어요 학원 같은 게 없으면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 빼놓고는 그런 학교만 있으면 공부 잘하는 애들도 학원 보내고 공부 못하는 애들도 학원 보내고 다 스트레스인거 같아요.” (어머니 B)

“한국에 와서 무엇을 하고 싶어도 모든 걸 제쳐놓고 자식을 잘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사회주의 사회에서 살다가 자본주의에 오니까 자본주의 자체가 뭔 말인지 세심하게 느낀 게 모든 게 다 돈이 드라고. 북한에서는 나라에서 아이 키워주고 교육 기본적으로 해주고 부모는 열심히 사회에 집중하도록 일하고, 애들 교육은 나라에다 맡기고.” (어머니 C)

(2) 자기 개방의 필연성

인터뷰 중 세 차례 이상 언급한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자녀교육에 대한 욕구 표출 양상에 있어서 출신성분을 언급할 필요가 있을 때는 대학 원서를 쓸 때이거나 공부를 가르쳐야 할 때라고 표현하였다.

“우리 애가 고등학교 원서 쓰면서 특별 전형 알아보다 보니까 선생님 보고 특별 전형

있을까요. 선생님이 애는 북한에서 온 애가 아니니까 특별전형은 모르겠습니다. 하더라도 내가 그거 됐으면 좋겠는데 선생님 아시면서 물어보시죠. 특별전형 뭘 알아봐 드릴까요. 제가 북한에서 왔어요. 하니까 진짜요? 이때까지는 말 안 했지요” (어머니 C)

“인수분해 공식이 있죠. 애가 몰라서 들고 왔는데 북한에서는 자세하게 배웠어요. 하나하나 단계가 있어요. 제가 배웠을 때가 생각나서 답이 나왔는데 답장에서 답이 똑같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했어라고 했더니 애가 이해를 하더라고요. 학교는 그냥 딱따 딱 이렇게 해서 딱 끝내 버린다는 거야. 어떻게 넘어가고 그런 거에 대한 문제 푸는 거에 대한 설명 없이 이렇습니다. 고만 가르쳐주니까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거를 모르니까 막히더라고요. 엄마가 배울 때는 이렇게 했어.” (어머니 B)

3) 지원

(1) 정부 지원의 불신

인터뷰 중 세 차례 이상 언급한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자녀교육에 대한 욕구 표출 양상에 있어서 정부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 있어서도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정책에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정부의 지원이 낮은 거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었다.

“어릴 때는 지원을 받는 것에 만족하지요. 북한과 비슷해요. 커 가면서 그런 지원에 의미가 없어요. 프로그램 문화 이런 거에 좋아요. 그러나 복지관에서 허송세월을 보내지 말고 부모로서 애한테 실속 있는 지원을 해줘야 해요.” (어머니 B)

“이미 받고 있어요. 교육도 받고 있구요. 괴외 활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어느 수준으로 학교에서 충분하지만 돈이 없으니까 학원을 못 보내는 거 따로 배워줄 능력이 되지 않다는 거.” (어머니 A)

(2) 조력자의 필요성

인터뷰 중 세 차례 이상 언급한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자녀교육에 대한 욕구 표출 양상에 있어서 남한 사회의 적응을 위해 도움과 요청 그리고 돌봄에 대한 언급을 하였다. 특히 물질도 중요하지만 교사의 지지와 돌봄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사춘기가 빠르다 보니까 성에 대한 이야기, 작년 겨울에 올해 1월에 남자애데 키가 163. 선생님들이 제가 아빠가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선생님들한테 이걸 좀 교육 좀 해달라고 해서 아들이 많이 달라졌다.” (어머니 D)

이처럼 인터뷰 내용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자녀교육에 대한 욕구 표출 양상에 있어서 교육 갈등, 교육 시스템 및 대처 그리고 지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표출 양상에 따른 의미를 살펴보면 북한 교육과 남한 교육의 예를 들어 비교하면서, 북한 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면서 남한 교육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한다. 특히 남한 교육에 대한 불만과 이질감, 사교육에 대한 강한 거부감은 한국 사회의 교육에 대한 단면을 꼬집어 주기도 한다. 특히

교사에 대한 비교를 주목해야 한다. ‘타고난 금수저 은수저’, ‘정체성에 대한 불편한 진실’의 하위 범주에서 보여 지듯 편견과 차별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정체성을 공개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남한에 온 가장 큰 이유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 자유를 찾아서 왔다는 그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다. 자신을 북한사람으로 볼 것인지, 남한 사람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다. 그래서 자신의 민족 문화적 정체성에 따른 물음표의 사유를 해야 하는 지점에 서 있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체성의 개방은 용기가 필요하다. 오직 자녀 교육 현실에 직면했을 때만 불편한 진실에 맞닥뜨렸으며 그로 인하여 남한의 현실 적응의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는 낮았으나 조력자의 역할은 강조하였다. 남한 사회의 적응을 위해 도움과 요청 그리고 돌봄에 대한 언급은 물질도 중요하지만 교사의 지지와 돌봄에 대한 강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및 시사점

지금까지의 본 연구를 통하여 2개의 주제, 5개의 범주, 16개의 하위범주로 분류되어 정의되었고, 각 영역별 주요 분석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갖고 있는 교육적 욕구는 북한만 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민족 정체성은 일반 다문화 가정이 갖는 교육에 대한 기대와 표현 양상과는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 사회에서 학습된 주체 사상 교육으로 인한 교육의 기대, 적응 방식, 교육 표출 방식에서 고유한 특성을 보여주었다. 북한 사회에서 학습된 주체 사상 교육은 타인에게 요청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는 김영경, 김형아(2009)의 연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북한이탈주민들은 그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해결하려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것은 남한에서의 사회 적응을 갈등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들의 이질감 및 거부감이 결국 동질감의 결여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자녀를 고등학교나 대학교로 진학 시킬 때,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중성을 보이는 것이 그 예이다. 이는 자녀를 위한 행동이고, 자녀만큼은 남한 사회에서의 주류 집단 속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부모의 열망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이들과의 공감대 형성은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남한 사회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에서의 주류 사회로 통합되기 위해서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인 교육적 현실은 여러 가지 불충분하다. 충분히 제공할 수 없음에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현실을 안타깝다. 이는 사회 내 소수 그룹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단계별 평등 정책, 적극적 조치와 다양한 정책이 보다 구조화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Berry(1997)의 연구에서 문화적 동화와 적응 외 다수의 후속 연구를 통해 모국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동시에 받아들이지 못하면 구별화 됨을 제시하였고 김선희(2016)의 연구에서 이들은 공간적, 육체적 측면은 북한을 이미 이탈하여 남한에 들어왔으나 정신적, 문화적인 측면에서 남한으로 아직 들어오지 못하고 북한에 머물고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과 남한 중 어느 한쪽에 속해있는 존재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양쪽 사이에 있는 존재라고 보고하였다.

이상 주목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민족적 정체성이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자녀 교육관에 대한 기대와 의미에 중요한 변수일 수 있다는 것은 민족적 범주보다 사회 경제적 환경이 중요한 변수란 점을 중시한 이민경, 김경근(2010)의 연구와는 다른 부분이다. 북한이탈주민과 다른 다문화 주체들(다문화 가정 및 이주노동자, 결혼 이주 여성, 외국인 유학생 등)이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인식, 민족 정체성의 성격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박형빈(2013)의 연구가 뒷받침하고 있다.

두 번째, 자녀 교육과 관련하여 편견과 차별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정체성을 공개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20년 이상 반복적인 주체사상교육으로 인한 민족 정체성이 내면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남한에 정착하더라도 급변하게 돌아가는 새로운 정체감을 획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더구나 신뢰가 낮은 국가의 울타리 안에서 불안하고 비판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민족 정체성에 따른 물음표의 사유를 해야 하는 지점에 서 있는 것이다. 그들은 남한 정부에 대한 신뢰는 낮았으나 조력자의 역할은 강조하였다. 남한 사회의 적응을 위해 도움과 요청 그리고 돌봄에 대한 언급은 물질도 중요하지만 교사의 지지와 돌봄에 대한 강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시사점은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의 교육 욕구에 대한 민족 정체성에 따른 교육 서비스는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우리 남한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타자를 인정하는 교육 지원책이 성숙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조상식·이종하(2006) 연구에서 민주주의 교육은 타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하며 이는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된 교육 지원책 제안으로 일방적 동화정책의 한계와 이데올로기적 한계를 들고 있으며 방과 후 소규모 문화 학교 개설과 시민학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들은 남한에 들어 온 이방인이 아니라 민족 정체성을 이웃 사랑과 자기 사랑이 상호 협조적으로 서로에게 스며들게 하는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듯 소외에 대하여 응답하고 함께 포용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종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종교 간의 이해와 대화 교육, 공존과 평화 교육, 통전적 영성 교육, 창조적인 생태 교육을 통해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갈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타자에 대한 이해와 다양성에 대한 감각, 그리고 공존과 평화를 위한 가치추구를 할 수 있는 종교적이며 영성적인 인간을 교육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이종민 2007 이종민). 또한 북한사회에서 종교적인 신념으로 인식되어 이어져온 김일성 주체사상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는 길이며 북한교육에 대한 회귀 본능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가 갖는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 수집에 있어서 북한 이탈 주민의 표적수집 대상자를 모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미니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법을 선정하였다. 보다 적극적 참여와 솔직한 대화를 이끌어 갈 수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포커스 그룹을 모집하여 일반화 시킬 것을 제안한다.

둘째, 부모의 배경을 학력과 체류 기간 등으로 범주를 나누어 양적내용분석을 하면 각각의 차이를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북한 체류 기간 이외에 남한 정착 기간, 자녀의 나이, 주 생활지 특성 등 개인적 요인 등에 좀 더 포커싱이 되어야 하므로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이와 같은 한계점을 고려하여, 더 많은 그룹의 북한이탈주민 부모들과 또 그 자녀들을 함께 인터뷰 하여 다양한 견해를 들어보는 것을 제안한다.

주요 참고문헌

- 강동완 (2008). 다문화 수용 관점을 통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방안. **서울행정학회**, 66,161.195.
- 권수현 (2011).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남한 국민의 태도.
- 김성재, 김후자, 이경자, 이선옥 (1999). **포커스 그룹 연구 방법**. 서울: 현문 사.
- 김성재, 오상은, 은영, 손행미, 이명선 (2004). **질적 연구로서의 포커스 그룹**. 경기도: 군자출판사.
- 김선희(2016) 북한이탈주민의 실존적 정체성에 대한 치료적 물음과 답변의 모색, 철학 실천과 상담 한국철학상담치료학회: 제6집,133~164.
- 김영하 (2010).다문화사회와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의 교육문제. **윤리교육연구**, vol.2
- 김희진, 유호열(2014) 북한이탈주민의 국가정체성 영향 요인, 유라시아연구 , 제11권 제3호(통권 제34호)
- 박진수 (2017). 다문화 결혼가정 자녀에 대한 복지정책 개선 방안 연구. 고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국내석사
- 박상옥(2014) 인문학 교육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학습경험: 치유와 자립의 학습과정 **Andragogy Today :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Vol.17 No.1**
- 박채형 (2012). 다문화 사회의 성격과 다문화 교육의 방향. 학습자 중심 교과 교육 연구, vol.12pp 141-150.
- 박형빈 (2013) 통일교육에서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 **윤리교육연구**, Vol.31 No.
- 부티짱 (2017) 한-베 다문화가족의 귀환여성과 그 자녀에 관한 연구. 서울대 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 서천대 (2017) 북한 이탈주민의 종교성과 주체사상에 대한 조사연구. 고려대학교 석사
- 여성가족부, 한국DMZ학회 (2016). **북한이탈청소년 욕구조사(연구보고 2016-03)**. 서울: 여성가족부.
- 이민경 (2010). 이주가정 학부모들의 자녀 교육 욕구: 자녀 교육 욕구 표출 양상과 의미화. **교육사회학연구 vol2. pp.129-156**
- 이종민 (2007)** 국내 이주노동자 자녀들을 위한 다문화 종교교육 가능성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 지다슬 (2015). 북한이탈청소년의 북한 소학교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이화 여자대학교. 국내석사.
- 조상식· 이종하 (2006) 문화간의 교육이론적 개념과 그 실천적 함의, **아시아교육연구 (7)**. 2
- 차미연 (2016)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그림책 활용 실태 및 그림책에 대한 인식과 요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6). **탈북 청소년 지원체계화 방안 연구**. 탈북 청소년 역량 진단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탈북 청소년 지원체계화 방안 연구(연구보고)**.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John W. Berry(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ion.
- Will Kimlicka and Keith Banting (2006.). 「Immigration, Multiculturalism, and the Welfare State」, 『Ethics and International Affairs』 Vol. 20 No. 3, Carnegie Council for

Ethics in International Affairs, p.299.